

◆며느리권씨 일전 10-2

### 3대(남편·아들·손자) 대제학 집안을 이룬

## 월사 이정구의 부인 권씨 (정경부인, 추밀공파23세, 충숙공 권극지의 딸)



월사 이정구와 부인 정경부인 권씨의 합장묘와 묘비



묘소 입구 건물. 이정구 고조부 이석형의 묘소는 정몽주 묘와 쌍유혈을 이루니 정수하고 발복한다는 명당이라고 한다.



이정구의 묘는 위에서 아래로 3단짜리 있다. 바로 위가 손자, 맨 위가 아들로, 역장(逆葬)이다. 부인 권씨와의 합장묘이며, 봉분 아래 부분에는 둘레석을 둘렀다. 봉분 앞에는 묘비·상석·향로석이 있고, 좌우에는 동자상·양주석·문인석이 각 1쌍씩 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 11번지에 있는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선생과 정경부인 권씨의 합장묘는 1984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묘역에는 그의 후손인 아들 이명한, 손자 이일상 등 조선시대에 대제학을 지낸 인물들이 묻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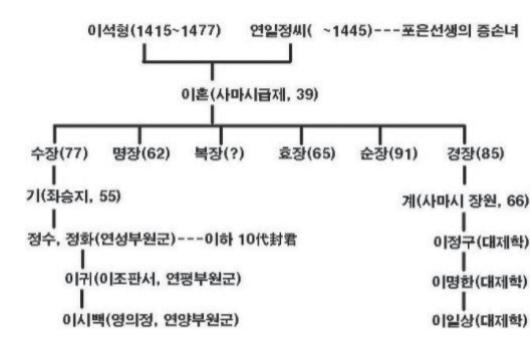
월사 이정구의 신도비는 1656년에 건립된 것으로 신도비의 비문은 이정구와 함께 윤근수의 문인 이었던 당시에 좌의정이던 문정공 청음 김상현(金尚憲, 1570-1652)이 지었으며, 영의정을 지낸 문종 공백현 이경석(1595-1672)이 썼으며, 김상현의 형 이자 전서(篆書)에 능했던 문종공 선원 김상용(金尚容, 1561-1637)이 전액(篆額)을 썼다.

묘위에 이정구의 장손 이일상(李一相)의 묘가 있고 그 위에 이정구의 장자 이명한(李明漢, 1595-1645)의 묘가 있다. 후손의 묘가 순서대로 있으면 역적이 나온다 하여 반대로 묘를 썼다고 하지만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으나 이정구의 묘를 이장하고 나서 풍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역 입구에 연안이씨삼세비(延安李氏三世碑)가 있다. 조선 시대에 대학자와 고관들을 줄줄이 배출한 가문으로 '연안李光金(연이광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안 이씨와 광산김씨 가문이 쌍벽을 이루었다. 월사 이정구는 신흡, 장유, 이식과 함께 조선중기 4대 문장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월사의 두 아들, 여덟 명의 손자, 그리고 열 다섯 명의 증손자대에 이르러 집안의 명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병자호란을 겪은 권씨의 삶은 말년에 와서는 불운했다는 것이다. 남편 이정구가 죽고 1년 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자신과 후손들은 강화도로 피란을 간다. 후퇴 시 맏아들 이명한이 '난 죽어도 좋으니 어머니(권씨)는 배에 태워달라.' 사정했으나 그냥 자신만 태워져서 나온다. 1637년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를 점령하면서 월사의 둘째 며느리, 첫째 손자 며느리가 자결을 하고, 둘째 손자인 이가상(1615-1637)이 가족을 구하고 대신 죽었다.

얼마 후에 권씨 부인과 맏느리가 난리의 후유증으로 병을 앓아 죽었다. 당시 권씨 부인은 70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난리에 참적(慘禍)을 겪으면서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것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다섯 명의 가족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거기다가 인조 임금을 호종하던 맏손자 이일상(후에 대제학)이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하다가 유배를 당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리고 이정구는 1631년 인오(印悟, 1548-1623)



그리고 이정구는 너무 유명하니 그의 또 다른 면모는 부귀는 멀리하였지만 낭만과 학문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불교사에 귀중한 자료도 남기고 있다.

1630년 묘향산 만폭동 보현사의 본사인 인심사(安心寺) 터 부도밭에 있는 임진왜란, 구국의 명승(名僧) 서산대사 허정(休靜, 본관 완산, 죄여신崔汝信)의 서산비(西山碑)를 찬(撰)했는데, 그 구절로 이해 조계종의 태고종종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이니 이 또한 흥미롭다.

"우리 동방의 태고화상(太古和尚)이 중국의 자하산(紫霞山)에 들어가 석옥정공(石屋清珙, 1272-1352)의 법을 이었는데, 이는 환암(幻庵) - 구곡(龜谷) - 정심(正心) - 지암(智嚴) - 영관(靈觀) - 서산(西山)으로 전하여졌다. 이는 실로 임제(臨濟)의 정파(正派)이니 오직 '서산'이 그 종(宗)을 독득(獨得)하였다."

그리고 이정구는 1631년 인오(印悟, 1548-1623) 스님의 문집 청매집(靑梅集) 서문을 찬술하고, 그의 저술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에 사찰 관련 시문이 남아있다. 서포 김만중의 부인이 그의 증손녀이다.

'이정구→이소한(李昭漢, 혜조판서, 모부 여주이씨)→이은상(李殷相, 혜조판서, 도승지)→김만중의 부인 이씨'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기서 장자 이명한은 권씨 소생이고 이소한은 이씨 소생임을 알 수 있다.

선친의 풍수 실력을 잘 아는 아들 이명한은 집안

에 닥친 우환과 꿈에 나타난 선친의 모습이 더해져 무덤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 후 월사의 두 아들 이명한(대제학)과 이소한(형조참판) 형제는 길지(明堂)를 찾아 2년 동안 전국을 해매다가 제천에 명풍수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 제천에 살고 있는 술사 이삼등(李三登)을 찾아가 길지 선정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는 당대 풍수계의 최고 실력자였다. 이명한 형제는 현재의 가평군 상면 태봉리 산 115-1번지에 있는 길지를 잡는다. 자세한 내력은 이명한이 선친의 무덤을 이장한 뒤 그 과정을 기록한 문집에 나와 있다.

새로 이장한 무덤은 아버지 이정구가 꿈에 암시한 분위기와 일치한다고 한다. 이 묘군(墓群)의 특징은 역장(逆葬)으로 썼다는 것이다.

전란이 주는 폐해가 냉병기(갑)를 주로 하던 시대에도 참혹하거나 현대에는 오죽할까? 전쟁을 가져온 지도자는 좌우간 암군(暗君)이며 하물며 일으킨 자는 더욱 폭군으로 오명을 만세에 남길 것이다. 작금 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도 그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막아야 하고 "전쟁은 끝까지 피해야 하고 하게 되면 무조건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 피해는 힘없는 민중이며 아녀자이고 몇 사람의 영웅은 남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병자호란의 참화(慘禍)만 없었다면 정경부인 권씨의 소박하지만 응흔한 삶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을 것이다. 그래도 그녀가 몸소 실천한 겸박(廉朴質定)한 생활 철학이 후에 연안이씨가 조선조에 명문이 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남편 이정구는 너무 유명하니 그의 또 다른 면모는 부귀는 멀리하였지만 낭만과 학문을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불교사에 귀중한 자료도 남기고 있다.

1630년 묘향산 만폭동 보현사의 본사인 인심사(安心寺) 터 부도밭에 있는 임진왜란, 구국의 명승(名僧) 서산대사 허정(休靜, 본관 완산, 죄여신崔汝信)의 서산비(西山碑)를 찬(撰)했는데, 그 구절로 이해 조계종의 태고종종을 설명하는 자료로 쓰이니 이 또한 흥미롭다.

"우리 동방의 태고화상(太古和尚)이 중국의 자하산(紫霞山)에 들어가 석옥정공(石屋清珙, 1272-1352)의 법을 이었는데, 이는 환암(幻庵) - 구곡(龜谷) - 정심(正心) - 지암(智嚴) - 영관(靈觀) - 서산(西山)으로 전하여졌다. 이는 실로 임제(臨濟)의 정파(正派)이니 오직 '서산'이 그 종(宗)을 독득(獨得)하였다."

그리고 이정구는 1631년 인오(印悟, 1548-1623) 스님의 문집 청매집(靑梅集) 서문을 찬술하고, 그의 저술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에 사찰 관련 시문이 남아있다. 서포 김만중의 부인이 그의 증손녀이다.

'이정구→이소한(李昭漢, 혜조판서, 모부 여주이씨)→이은상(李殷相, 혜조판서, 도승지)→김만중의 부인 이씨'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기서 장자 이명한은

권씨 소생이고 이소한은 이씨 소생임을 알 수 있다.



삼세신도비(三世神道碑) 묘역 하단에는 이정구, 이명한, 이일상의 신도비가 건립되어 있다. 모두 개석방부(蓋石方趺, 지붕돌과 네 모단 비석 받침) 형태이다. 이정구 신도비는 1656년에 건립되었으며, 김상현(金尙憲)이 비문을 짓고, 김상용(金尙容)이 전서(篆書)를 썼으며, 이경석(李景奭)이 글씨를 썼다. 1658년에 건립된 이명한 신도비는 비문을 김상현이 짓고 이경석이 썼으며, 이정명(李正英)이 전서를 썼다. 1703년에 건립된 이일상 신도비는 박세재(朴世采)가 비문을 짓고, 조상우(趙相愚)가 썼으며, 김창협(金昌協) 전서를 썼다.

고 멀지 않은 가평으로 가서 정경부인 권씨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 隱寂尋僧 (은적심승) 은적산의 스님을 찾아서

##### 石逕崎嶇杖滑苔 (석경기구장탈태)

돌길은 험난하고 지팡이는 돌 이끼에 미끄러지는데 淡雲疎磬共徘徊 (담운소경공徘徊)

맑은 구름과 은은한 풍경소리가 어우러져 메아리처 沙彌叉手迎門語 (사미차수영문어)

사미승이 두 손을 맞잡고 문에서 맞이하며 말하기를 師在前山宿未廻 (사재전산숙미회)

스승님은 앞산에 계시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하네

글 권오철 기자

李子仲季魯溪權三達

庚子仲季魯溪權三達

庚子